

공업포장협회 사단법인 단체 등록 공업포장 업계 발전 위한 다각도 사업 추진 계획



이 현 호
(사)한국공업포장협회 회장

공업포장협회가 산업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그동안 공업포장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협회는 사단법인 등록을 통해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다각도로 펼칠 계획이다.

이현호 회장에게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 보았다.

- 편집자 주 -

Q. (사)한국공업포장협회의 사단법인화 소감

A. 당 협회는 2003년 8월에 창립하여 그 동안 공업포장업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분야별로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 개선해 나가는데 있어서 임의 단체로는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의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통하여 앞으로 더욱 업계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매우 기쁘고 보람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사단법인 추진 계기와 그간의 경위

A. 한국공업포장협회는 수출품의 수송포장을 주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전국에 600여 개의 업체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70% 이상이 1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많은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기술자를 양성하거나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한 적절한 포장기술의 개발 및 포장업에 적합한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더욱이 수출기업의 일방적인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약점을 갖고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술자 양성, 합리적인 가격 산출 기준의 확립,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한 포장기법의 개발, 포장 클레임에 대비한 보험제도의 도입 그리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인 수출품 수송포장 업종에 대기업이 영업을 확대해 나가는데 대하여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임의단체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어서 회원사 및 업계의 뜻을 모아 사단법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Q. 협회의 그동안 활약상 및 성과에 대한 소개

A. 한국공업포장협회는 주로 수출품의 수송포장업을 하는 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단체입니다. 협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도교육사업, 안정 합리화사업, 공동구매알선사업, 기능활성화 사업 및 국제교류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기술 교육의 실시와 관련 표준의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왔으며 특히 한중일의 관련 표준의 통일화 사업은 매우 큰 성과를 이루었고 최근에 당 협회가 제안하여 한중일 3국 수송포장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은 스스로 자랑할 만한 성과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구매알선 사업은 협회의 고정적인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고 현재 진행 중인 제함공장 공동운영 사업, 포장클레임에 대한 보험제도 도입 사업, 포장비 표준산출 기준의 제정 사업 등은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사업입니다.

회원사 간의 화합을 위해 지역별로 각종 친목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상호 협력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Q. 사단법인 한국공업포장협회의 초대회장의 역할을 맡게 되신 만큼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협회 운영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A. 초대회장으로서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지만 지금까지 수행해온 사업들을 구체화하고 완성해나가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포장단지 조성사업은 정부의 정책에 성공 여부가 달려있는 사업이므로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획 수립에 역점을 두어왔던 (가칭)수송포장관리사 자격증 인정 강좌를 개설하여 유능한 기술자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협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갖추는데 힘을 기울이고 회원수 확대에 모든 회원사들과 함께 협력, 노력할 것입니다.

Q. 그동안의 경력과 이력사항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A. 대학 졸업 후 1987년 삼성전기에 입사하여 2년간 근무한 후 퇴사하고 (주)신흥목재에 입사하여 포장업에 입문한 이래 26년째 이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후 1999년에 (주)신흥목재를 퇴사하고 현재의 (주)서원수출포장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당 협회의 감사로 선임되어 협회 운영에 관여하게 되었으며 2012년도에 당 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여 4년째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사단법인 한국공업포장협회 창립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어 새롭게 출발하는 사단법인 한국공업포장협회를 이끌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1998년에는 국제로타리 3750지구에 가입하고, 2007년부터 2년간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Q. 공업포장업계의 최근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을 위한 협회의 노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A. 현재 수송포장업계가 당면한 가장 힘든 점은 포장비가 터무니 없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출물량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가격마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 겹쳐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세계적으로 친환경 포장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규제 지침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 발생은 더욱 업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일부 대기업이 포장사업 관련 부서를 만들어 수출포장 영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을 창립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도 이에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반드시 저지해야 할 문제로서 모든 회원사 뿐만 아니라 비회원사들도 적극 호응하고 있으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포장단체 혹은 정부에 바라고 싶은점이 있으신가요?

A.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가 성공적으로 출발하게 되어 포장업계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패키징산업진흥법을 다시 살려 여러 분야의 패키징 산업이 공동 발전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Q. 향후 계획

A. 수송포장은 물류분야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포장화물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서는 포장분야만이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없으며 물류 분야와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 협회는 하나의 방법으로 물류혁신을 위한 수송포장세미나를 매년 2회씩 주제를 바꿔가며 포장업계, 물류업계, 포장 및 물류 전문가 그리고 수출기업의 포장, 물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를 장래에 2년에 1회씩은 국제세미나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도 이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협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말이 가까워오고 있는 시점에서 미리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포장인 여러분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